

사업수행기관별 - 종합사회복지관 - 초등/중등

기관명 | **녹번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명 | 보석비빔밥 마을
 한 줄 요약 | 중학생에게 그림동화는 시시하다? NO!

사업 개요

“보석비빔밥 마을”을 통해서 아이들은 생소했던 여러 나라의 문화와 자연스럽게 친해지면서 다문화 감수성을 기를 수 있게 되고, 결혼이주여성들은 재능나눔의 일환으로 일일교사가 되어 교육자로서의 보람과 함께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의 특성상 관련 예산의 부족으로 교육복지사업에 포함되지 못하게 된 비지원사업학교들에도 다문화교육의 기회가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구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세 곳을 선정하여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기간	6월 ~ 12월	2개월(기획 및 준비), 3개월(수업진행), 1개월(평가)
구성	학생 : 약 500명	초등학교(열세 반) : ○○초 4학년(일곱 반), △△초 6학년(여섯 반) 중학교(여섯 반) : ▽▽중 1학년(여섯 반)
	강사 : 11명	필리핀 공동체 소모임 3명, 베트남 공동체 소모임 8명
	방식 : 90분 수업	학교 각 반 별 1회씩 수업

활용된 올리볼리 그림동화

원숭이와 거북이(필리핀)
 엄마를 찾아서(베트남)



세부 일정

기간	일정	내용
6월	중학교 강의안 및 일정 논의	그림동화를 활용한 강의안 기획 교육용 PPT 작성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기획
	강사 모집	필리핀 공동체 소모임에서 지원자 선발
7월	중학교 총 6회 수업 진행 (10일, 15일, 17일)	필리핀 동화 관람, 필리핀 문화교육, 전통문화체험(놀이, 요리 등)
10 ~ 11월	초등학교 강의안 및 일정 논의	그림동화를 활용한 강의안 기획 교육용 PPT 작성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기획
	강사 모집	베트남 공동체 소모임에서 지원자 선발 모의 강의를 통한 연습 및 음식체험 재료 준비
11월	초등학교 총 13회 수업 진행 (13일, 17일, 24일)	베트남 동화 관람, 베트남 문화교육, 전통문화체험(의상, 요리 등)
12월	평가회의	전체 프로그램 평가

1) 중학생에게 동화는 지루할 뿐?

현장사례 1)

“필리핀 자원봉사 모임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록산느 선생님은 ▽▽중학교에서의 첫 수업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준비할 당시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는 달리 이른 사춘기를 겪고 있을 중학교 아이들 앞에서 과연 수업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동화를 잘 보지 않는 중학생들에게, 요즘말로 가뜩이나 ‘중2병’에 걸려 있을지 모를 아이들에게 올리볼리 그림동화로 시작하는 다문화교육이 지루하게 느껴질까봐 염려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교실을 가득 채우는 아이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에 그 무거웠던 고민들이 단번에 날아가 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은 그녀가 자기소개를 하고 동화를 감상하는 동안 계속됐고 수업을 끝내고 그녀가 문을 나설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몸만 부쩍 자란 것이 아니라 마음도 성숙해진만큼 수업 태도 면에서도 훨씬 더 어른스러워진 중학생들의 활기찬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Tip 즉석 퀴즈대회

올리볼리 그림동화는 저학년 어린이들에게 적합하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동화 그 자체만으로 중학생들의 흥미를 끌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품을 걸고 퀴즈대회를 열어서 관심을 높이면 아이들의 눈을 꽤 반짝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동화 속에 나온 간단한 명칭이나 전체 줄거리만으로도 쉬운 퀴즈 문제는 얼마든지 낼 수 있지만, 중학생들에게는 훨씬 풍부하고 창의적인 대답이 가능하도록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치 서술형 문제처럼 동화의 주제나 교훈을 정해진 글자 수 안에서 직접 요약해 말해보도록 한다거나, 주인공의 성격이나 주인공이 사건 속에서 느꼈을 심정에 대해서 동화 내용을 바탕으로 유추해서 말해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전통문화체험에는 폴라로이드가 필수!

기록용으로 쓰이는 일반적인 카메라와 함께 폴라로이드를 준비해 가면 전통문화 체험의 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있을 때의 모습을 찍어서 즉석에서 인화해주면 아이들이 훨씬 재미있게 그 시간을 즐길 수 있고, 수업이 끝난 뒤에도 다문화교육의 인상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선생님! 우리 엄마도 선생님이랑 같은 나라에서 왔어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이뤄지는 다문화교육 시간에 의도치 않게 다문화가정의 아이가 공개적으로 노출되거나 아이들의 놀림거리로 지목될까봐 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는 간혹 나의 어머니가 (강의하는 선생님처럼) 다른 나라에서 왔으며 스스럼없이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의 자기 노출에 잇따를 수 있는 주변 친구들의 거리두기, 심지어 왕따에 대해 걱정하고 대비하는 것은 교사로서 반드시 지녀야 할 문제의식이지만, 이렇게 자신에 대해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건강한 아이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독려할 수 있는 태도 또한 미리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단체 소개

1996년 2월에 개관한 녹번종합사회복지관은 나눔과 섬김의 가치 실현을 위해 서울시 은평구 내 저소득층, 노인, 청소년 등을 위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녹번복지관은 2008년부터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를 열어 올해로 6년째 운영 중이며,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을 꾸준히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문화다양성이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만의 커뮤니티인 '열매'를 조직하여 이들이 지역 내에서 봉사활동, 다문화교육, 통번역 등으로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및 홈페이지

최혜림 02-388-6341 / 홈페이지 <http://nokbeon.or.kr/>